

北方政策과 韓國經濟의 活路 마련



李 明 珪

國際民間經濟協議會 企副管理部長

국내기업들의
대북방투자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국내적으로 북방투자 관련 법규의
미비 북방투자에 대한 해외투자
자금지원체제 미비 투자협정보장
및 2중과세 방지협정의 체결
미비 기타 투자정보 지원
체제의 미비 등으로
들 수 있다.

1. 북방정책의 목표

- 정치외교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

21세기의 문전에서 선진국으로의 새로운 발전단계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한국에 도래한 도전과 기회는 환태평양시대의 도래와 국제사회에서 확산되는 脫 Ideology 경향으로 인한 북방으로 통칭되는 사회주의 諸國의 개방화와 對韓接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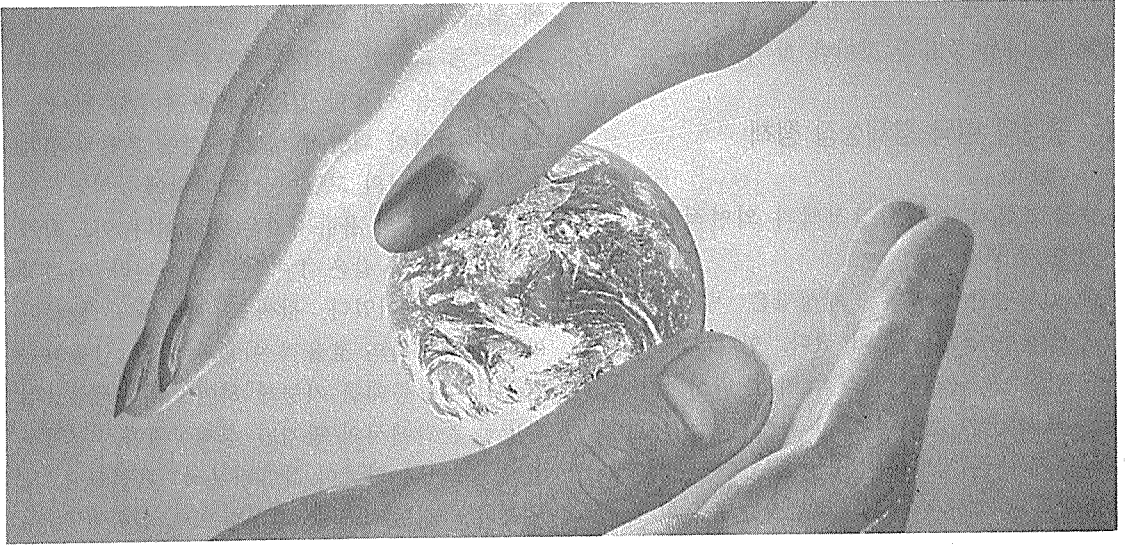
환태평양권에 위치한 한국은 이러한 두가지의 큰 변화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의 창의적 극복이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것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도전의 창의적 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태평양에 국토의 일부분을 걸쳐고 있는 중국과 소련이라는 두 거대한 북방국가들과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 對應하는 것이 태평양시대의 준비와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점에서 효율적인 북방정책의 추진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가늠하게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방정책은 크게 두가지의 목표, 즉 정치외교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정치외교적 목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던 사회주의 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전방위적 외교관계를 펴나감으로써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환경을 형성한다는 것이며, 경제적인 목표로는 對북방지역 경제교류 촉진 등을 통해 경제안정,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선진화를 이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의 인위적인 구분이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나타나



지난 30여년간 우리의 경제성장은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을 통해 이루어졌다.

는 양상은 상호작용 혹은 상호중첩되거나 동일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관심사 혹은 상위적 정치체제가 경제적인 목표를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으나, “상품이 가는 곳에 국교가 수립된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체제가 정치체제를 선도해 나아감을 볼 수 있다.

이런점에서 정치적 動機가 중요시 되었던 북방정책이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목표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어 왔으며 앞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경제가 봉착한 난관과 이의 극복방안 모색 중 북방정책의 시의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북방정책추진을 통한 국가경제발전 도모의 가능성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2. 지리적 인접성

- 경제지리 우위의 시대

북방정책의 국가경제발전과의 관계는 먼저 지리적 인접성에 발견되어 진다. 물자의 이동이라는 국가간 경제교류에 있어서 지리적 인접성은 물자를 포함한 생산요소의 이동경비 절감을 통

하여 국가간의 교역이익 증대를 가능케 한다.

이러한 지리적 인접성의 중요성은 국제사회구조변화가 정치적 요소가 아니라 경제지리적 요청에 따라 재편되어 가는 것에서 그 중요성을 익히 발견할 수 있다.

유럽공동시장의 등장과 '60년대 영국의 EC 가입은 본래 British Common Wealth에 속했던 호주와 뉴질랜드로 하여금 그들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영국으로부터 탈피하여 일본, 미국, 한국 등 태평양연안국들에게 눈을 돌려 경제적 생존을 위해 새로운 이웃을 발견케 하는 등 경제지리적 요청은 국제사회재편의 중요한 요소로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 각국의 개별국가경제가 각각의 독립된 경제체제이면서도 실제로는 대외배타적 독립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간의 상호교류나 거래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국제거래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경비절감인데, 소련, 중국 등 북방경제권과 한국이라는 교류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리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 상호번영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거래의 용이성은 한국의 또다른 지리적여건, 즉 부존자원의 빈곤과 고밀도의 인구분포 등으로 인해 수출

등 대외교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종래의 한국 경제성장 정책

-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정책과 외연적 성장 추구

지난 30여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은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을 통해 이루어 졌다. 한나라의 경제적 근간은 그 나라의 지리적 여건 다시 말하면 국토와 인구의 결합이 많이 좌우된다. 특히 국토의 자원부존 정도나 인구밀도는 그 나라의 경제정책과 경제력을 구성·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빈곤한 부존자원과 고인구밀도라는 한국의 상황은 한국이 수출을 통한 활로 모색과 이로인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물론 수출이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 데는 수출을 가능케한 노동의 상품화를 통해 가능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의 지속적 추진은 수출시장의 지속적인 확보 및 확대와 수출상품의 생산을 가능케 한 노동의 지속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경제는 이러한 두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에 부딪치고 있다.

먼저 시장의 확보 및 확대의 측면에서는 수출의 서방시장 의존도가 높는데 이러한 기존의 수출시장에의 진출은 통상마찰이나 EC 제국으로부터의 보호주의 장벽에 부딪혀 이의 지속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라는 과제는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였는데 북방사회주의 諸國이라는 거대한 신시장의 등장은 활로 개척의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신시장은 앞서의 경제지리적 근접성과 품목의 예상수요나 공급면에서도 합치하는 것으로 여겨져 그 발전가능성이 더욱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 한국이 그동안 취해온 외연적 성장정책과 한국과 북방국가들간의 산업구조상의 차이

에 협력가능성이 발견되어 진다.

한국은 그동안 외연적 성장정책 즉 유희자원 특히 노동을 이용한 성장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외연적 성장이 갖는 본연적 한계점인 유희자원의 고갈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한국에서의 유희자원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지의 원료와 같은 1차산물이 아니라 인적자원 즉 노동력이었다. 값싸고 질좋은 노동력이라는 유희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이의 상품화는 지속적 수출증대를 가능케 하여 외연적성장이 활발한 순간에서의 활기만 경제상황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유희자본적 관점에서 노동력이 가졌던 장점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점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한국은 외연적 성장에서 내연적성장으로 정책전환을 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조정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점에 좋은 협력가능성이 놓여있다. 한국의 외연적 성장정책추진 경험은 중국 등 유희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경제성장전략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외연적 성장 주도업종을 북방국가에로 이전함으로써 상호이익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직접투자의 업종면에서 노동집약적 업종 등이 진출하는 사실에서 잘 발견되어 진다. '90년 1월 30일 현재 업종별 투자현황(표1 참조)을 살펴 보면 한국의 對북방투자의 지역별(표2 참조) 분포에서 87%이상 55건(116.2백만불)에 달하는 중국에의 직접투자가 섬유, 완구, 신발 및 전자제품의 단순조립 가공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진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물론 중국은 자동차, 오토바이, TV, 라디오, 냉장고, 재봉틀 등 12개 분야에 대해 외국자본의 진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PC, 컴퓨터, 가전제품 등을 중·소양국은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가능성은 매우 높다.

중국에서의 외국자본회사의 '89년 수출은 36억불로 '88년에 비해 두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표 1〉 업종별 투자현황('90. 1. 31일 현재)

(단위 : 만불)

구분	건수	비중	금액	비중
제조업	46	73.0	9,241.6	40.5
음식료품	5	7.9	899.7	3.9
섬유	11	17.9	2,092.4	9.2
완구	5	7.9	159.9	0.7
신발	2	3.2	320	1.4
전기·전자	11	17.5	2,704.9	11.8
기계	2	3.2	1,192.5	5.2
기타	10	15.8	1,872.2	8.3
비제조업	17	27.0	13,599.4	59.5
건설업	4	6.3	6,804	29.8
수산업	7	11.2	1,184	5.2
요식업	2	3.2	186.8	0.8
기타	4	6.3	5,424.6	23.7
합계	63	100.0	22,841	100.0

〈표 2〉 지역별 투자현황('90. 1. 31일 현재)

(단위 : 만불)

구분	건수(A)	비중	금액(B)	비중	B/A
중국	55	87.3	11,622.5	50.8	210.3
소련	3	4.8	1,252	5.5	417.3
헝가리	3	4.8	9,646.5	42.3	3,215.5
베트남	1	3.1	320	1.4	320
합계	63	100.0	22,841	100.0	362.6

이와 같이 외국의 자본을 끌어 들여 수출을 진흥하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외연적 성장경험의 전수와 그동안 이에 의존해 왔던 한국의 주요업종이 북방국가에 진출하는 것은 상호협조 발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활로 모색에도 기여할 것이다.

4. 새로운 경제성장 정책

- 내연적 경제성장 추구측면에서의 북방 국가와의 협력증진과 국가경제발전

또 다른 점에서 북방정책을 통한 한국 국가경제의 활로모색은 내연적 성장정책에로의 이행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국경제는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을 위해 내연적 성장 즉 기존 생산요소의 질적인 향상을 통한 성장, 특히 생산에서 본원적인 요소인 노동의 질적향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은 사실이다. 그러나 또다른 중요한 변수는 High-tech를 이용한 기술혁신이다. 이러한 High-tech의 응용이나 Breakthrough형 기술개발은 튼튼한 기초과학의 토대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화학, 금속, 재료 등의 측면에서 비교적 튼튼한 기초과학의 기반을 갖고 있는 북방의 국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한국의 내연적 성장을 가능케 하여 한국경제에 또다름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지난 1월 방한한 소련 사회주의 국가 경제연구소 아시아담당 바실리미키예프의 지적은 이점

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그는 「한소경제관계 발전」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소련의 풍부한 원자재 등 유희자원과 한국의 투자를 결합시킨 형태의 경제협력도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나 보다 활발한 양국간의 새로운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키에프박사는 소련의 기초과학, 특히 생명공학, 신소재공학, 항공우주공학 등에서 수준 높은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를 활용, 상품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데 내연적 성장추구를 함에 있어서 한국기업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겪고 있는 낙후성을 보완함으로써 서방국가들로 부터의 기술이전 거부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연적 성장에 있어서는 수출을 통한 성장추구가 아니라 내연적 성장이 수출을 유발하는 함수관계를 형성시키므로, 중전의 수출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함수관계로 인해 과도한 수출신장 추구과정에서 겪었던 수출상대국들로부터의 제반 불공정관행을 극복할 수 있어서 한국경제가 발전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 장기적 관점에서의 진출분야

- Infra-structure에의 투자

이점은 한국기업들의 대북방투자에 따르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여타 업종의 진출을 증대시킬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이 분야에서 직접 투자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국내기업들의 대북방투자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국내적으로 북방투자 관련 법규의 미비, 북방투자에 대한 해외투자 자금 지원체제 미비, 투자협정보장 및 2중과세 방지협정의 체결 미비, 기타 투자정보 지원체제의 미비 등으로 들 수 있으며 투자대상국가의 측면에서는 현지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중 투자관련 협정미비로 인해 對서방투자 對比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과 같은 국내적 문제는 북방국가와의 정식외교관계 수립 진전과 관련 협정의 체결 추진, 국내적 절차개선 등 점차 해결되어 감을 고려할 때 사회간접자본의 결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앞으로 증대될 對북방경제교류 증대 뿐 아니라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중국에의 Tank Terminal 건설 및 운영이나 소련의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對북방진출 및 국가경제발전의 측면에서 적극 고려되어야 할 분야이다.

6. 맺음말

- 도전의 효율적 극복을 통한

국가경제도약의 전기 마련

앞서 몇가지 살펴본 북방경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도모는 대두된 몇가지 문제점을 통해서 가능하다.

지난 1·2년간 북방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측면의 문제점을 국내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북방진출의 단기적 성과에 대한 기대와 선점논리 등으로 인한 경쟁적이고 무질서한 진출, 또 경제체제의 상이함과 이에 대한 정보부족에서 오는 문제점, 투자자금지원과 관련된 체제정비의 미흡 등이다. 이러한 국내적인 정비를 요하는 문제점 중 정부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점은 논의로 하고 업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과당진출에 따른 자율조정근거 마련을 통해 중동에서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보의 부족 등은 북방경제 전담창구로 설립된 IPECK이나 연구기관 등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도래된 환태평양시대와 북방국가의 개방이라는 가능성의 효율적 극복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